

국어 해설위원: 기미진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연도	유형	문법/규범	비문학/독해	문학	어휘/한자
2018년		12(▲3)	2(▽2)	4	2(▽1)
2017년		9	4	4	3

2018 서울시 7급 시험은 작년 같은 날 시행되었던 서울시 시험과 유사한 유형과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지난해와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문제 유형별 출제비중은 문법/규범이 무려 3문제가 증가한 12문제가 출제되어 지식형 문제가 강조되는 서울시 시험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비문학/독해는 1문제가 줄어들어 지난 국가직/지방직 9급 시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문학은 4문제로 문항 수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 어휘/한자 문제는 1문제가 줄어들어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비교적 평이한 한자어가 출제되어 어휘/한자 문제로 인한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시 대비 아침 특강에서 시험 이틀 전에 다룬 속담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특이한 유형으로는 ‘판소리 용어’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혹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되고, ‘한국어의 양순음’과 ‘국어의 불규칙 활용’ 및 ‘품사’, ‘조사에 대해 다소 깊이 있는 이해를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들은 그간 서울시 시험에서 줄곧 다루어졌던 것이므로 그동안 기출문제를 충실히 풀고 기출 변형 문제풀이를 통해 꾸준히 훈련을 한 수험생들의 경우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대비 아침 특강을 통해 2011년~2017년 서울시 기출변형문제를 모두 풀었던 학생들의 경우 제7회에서 ‘천상병의 <귀천>’을 제시문으로 다루었고, 시험 삼일 전과 사일 전에 시대 순서 나열 작품 중 두 작품(구자기와 월산대군의 시조)이 적중하여 현대 문학사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에는 이번 서울시 7급 수준의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단순히 답을 알아맞히는 것을 넘어 그 원리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비문학/독해 및 문학의 경우에는 비교적 길이가 짧은 7급 제시문 위주로 문제 유형을 나누어 매일 2~3문제씩 풀고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고어와 한자로 해석이 어려운 고전시가들은 매일 2~3문제씩 풀고 해당 작품에 대한 현대어 풀이 및 분석 내용을 교재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평소에 미리 접해두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에는 암기만이 우리의 살길이므로 매일 30분씩(그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대하게 2019년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4.
기미진 올림

* 기미진 선생님과 소통하기

네이버, 유튜브에서 [기미진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skorean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edu_korean_edu
- 유튜브 채널: youtu.be/0ORfstCC6g

1. 현대 한국어의 양순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양순음에는 ‘ㅂ, ㅃ, ㅍ, ㅁ’ 등이 있다.
- ㄴ. 양순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다.
- ㄷ. ‘ㄹ’은 비음이지 양순음은 아니다.
- ㄹ. 양순음은 발음 과정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는 공통점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자음의 분류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양순음(兩脣音)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말하며, 국어의 ‘ㅂ’, ‘ㅃ’, ‘ㅍ’, ‘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ㄱ. [O] “양순음에는 ‘ㅂ, ㅃ, ㅍ, ㅁ’ 등이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ㄴ. [X] 양순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아니라 파열음과 비음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습니다. (파열음: ㅂ, ㅃ, ㅍ), (비음: ㅁ)

ㄷ. [X] ‘ㄹ’은 비음이자 양순음에 해당합니다.

ㄹ. [O] “양순음은 발음 과정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는 공통점이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ㄱ, ㄹ입니다.

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판소리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춘향가>를 공연한다고 하여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광대가 서서 노래를 부르고 옆에 앉은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추며 이따금 ㉠ “얼씨구” 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몽룡이 춘향이를 업고 ㉡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절로 흥이 일었고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거지로 변장하여 ㉢ 월매와 말을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 잔치에 모인 벼슬아치들이 ㉣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몸짓으로 흉내내는 것을 보니,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해야 판소리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 | | |
|-------|----|-----|-----|
| ㉠ | ㉡ | ㉢ | ㉣ |
| ① 추임새 | 소리 | 발림 | 아니리 |
| ② 너름새 | 더늠 | 발림 | 아니리 |
| ③ 너름새 | 더늠 | 아니리 | 발림 |
| ④ 추임새 | 소리 | 아니리 | 발림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판소리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④ [O] ㉠ ‘추임새’는 판소리에서, 장단을 짚는 고수(鼓手)가 창(唱)의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삽입하는 소리를 말하며, ‘춘지’, ‘얼씨구’, ‘흥’ 따위입니다. ㉡ ‘소리(창)’는 판소리에서, 가창자가 가락에 맞추어 높은 소리로 노래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아니리(사설)’는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을 말합니다. ㉣ ‘발림(너름새)’은 판소리에서, 소리의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참고로 ‘더늠’은 판소리에서, 명창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르는 어떤 마당의 한 대목을 말하며, ‘바다’는 판소리에서, 명창이 스승으로부터 전승하여 한 마당 전부를 음악적으로 절묘하게 다듬어 놓은 소리를 말합니다.

3. 밑줄 친 부사어의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고기가 까맣게 탔다.
 ② 비겁하게 굴지 마라.
 ③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④ 이 술은 시원하게 마셔야 맛있다.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5회 14번 / 제16회 참고 자료 5번, 6번

출제 영역 // 문장 성분의 구별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③, ④ [X]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사어로 쓰였습니다.
 ② [O] '비겁하게'는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 부사어입니다. '굴다'는 '~게 굴다'와 같이 씁니다.

4. 표준 발음법 상 'ㄹ'의 발음이 동일한 것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상견례, 의견란, 백리
 ② 임진란, 공권력, 광한루
 ③ 대관령, 입원료, 협력
 ④ 동원령, 구근류, 난로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6회 9번

출제 영역 // 음의 동화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상견례[상견례], 의견란[의 : 견난], 백리[백리]'는 유음화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한자어에서 'ㄴ'과 'ㄹ'이 결합하면서도 [ㄹ]로 발음되지 않고 [ㄴ]으로 발음되는 예들을 보인 것인데, 실제의 발음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기에 [ㄴ]으로 발음하는 단어와 [ㄹ]로 발음하는 단어는 개별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그 발음을 표시합니다.
 ② [X] '임진란[임 : 진난], 공권력[공권력]'은 유음화의 예외에 해당하며, '광한루[광 : 할루]'는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하는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③ [X] '입원료[이원료], 협력[협력]'은 유음화의 예외에 해당하며, '대관령[대 : 관령]'은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하는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④ [X] '동원령[동 : 원령], 구근류[구근류]'은 유음화의 예외에 해당하며, '난로[날 : 로]'는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하는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5. 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그 예를 가장 바르게 짝 지은 것은?

<보기>

- (가)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나)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다)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라)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경우가 있다.

- ① (가) - 짓다, 푸다, 눅다
 ② (나) - 깨닫다, 춥다, 씻다
 ③ (다) - 푸르다, 하다, 노르다
 ④ (라) - 좋다, 파랗다, 부엌다

[문제 분석]

2018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p.39 17번

출제 영역 // 용언의 활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X] '짓다'는 '지어'와 같이 어간의 끝소리 'ㅅ'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ㅅ' 불규칙 용언입니다. '푸다'는 '꽤'와 같이 어간 끝의 '우'가 어미 '어' 앞에서 탈락하는 '우' 불규칙 용언입니다. 그러나 '눅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받침의 'ㄴ'이 'ㅇ' 또는 '우'로 바뀌는 'ㄴ' 불규칙 용언으로 (나)에 해당합니다.

- ② [X] '깨닫다'는 '깨달아'와 같이 어간 말음인 'ㄷ'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활용을 하는 'ㄷ' 불규칙 용언입니다. '춥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받침의 'ㅂ'이 'ㅇ' 또는 '우'로 바뀌는 'ㅂ' 불규칙 용언입니다. 그러나 '씻다'는 '씻어'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하므로 (나)와 무관합니다.
 ③ [O] '푸르다', '노르다'는 '푸르러', '노르러'와 같이 어미 '어', '어서'의 '어'가 '러'로 바뀌는 'ㄹ' 불규칙 용언입니다. '하다'는 어미 '아'가 '여'로 변하는 어미 활용을 하는 '여' 불규칙 용언입니다. '하다' 및 접미사 '하다'가 붙는 모든 용언은 '여'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④ [X] '파랗다', '부엌다'는 '파래', '부엌'과 같이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아'·'어'로 바뀌는 'ㅎ' 불규칙 용언입니다. 그러나 '좋다'는 '좋아'와 같이 규칙 활용하므로 (라)와 무관합니다.

기특 플러스 용언의 활용

① 용언의 규칙 활용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간혹 달라진다고 해도 그 현상을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이라 하며, 이러한 용언을 규칙 용언이라 합니다.

종류	내용	예
'ㄹ' 탈락	어간의 'ㄹ' 받침이 'ㄴ', -(으)ㄹ, ㅂ, ㅅ, -(으)ㅇ 앞에서 탈락	• 날다 → 나는, 나니, 나시다. 날니다. • 볼다 → 부는, 부니, 부시다. 볼니다. • 어절다 → 어진, 어지니, 어지시다. 어집시다.
'ㄷ' 탈락	모음 앞에서 어간의 'ㄷ'가 탈락	• 담그다 → 담가, 담갔다. • 잠그다 → 잠가, 잠갔다. • 고평다 → 고평, 고평다. • 바쁘다 → 바빠, 바빴다 • 따르다 → 따라, 따랐다. • 치르다 → 치러, 치렀다. • 크다 → 커, 컸다.

② 용언의 불규칙 활용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이 있는데, 이들 중 국어의 일반적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 하며,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종류	내용	예
어간이 바뀌는 경우	'ㅅ'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받침의 'ㅅ'이 탈락 • 굶다 → 그어, 그으니, 그었다. • 낫다 → 나아, 나으니, 나았다. • 잇다 → 이어, 이으니, 이었다. • 짓다 → 지어, 지으니, 지었다.
	'ㄷ'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받침의 'ㄷ'이 'ㄹ'로 바뀜 • 신다 → 실어, 실으니, 실었다. • 걷다 → 걸어, 걸으니, 걸었다. • 듣다 → 들어, 들으니, 들었다.
	'ㅂ'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받침의 'ㅂ'이 'ㅇ' 또는 '우'로 바뀜 • 굶다 → 구워, 구우니, 구웠다. • 덥다 → 더워, 더우니, 더웠다. • 밟다 → 미워, 미우니, 미웠다. • 괴롭다 → 괴로워, 괴로우니, 괴로웠다. • 쉽다 → 쉬워, 쉬우니, 쉬웠다.
	'우'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우'가 탈락 • 푸다 → 퍼, 뻗다.
	'ㄹ'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끝음절 'ㄹ'이 'ㄹ'로 바뀜 • 가르다 → 갈라, 갈랐다. • 부르다 → 불러, 불렀다. • 거르다 → 걸러, 걸렸다. • 오르다 → 올라, 올랐다. • 이르다 → 일러, 일렀다.
어미가 바뀌는 경우	'여' 불규칙	'하다' 및 접미사 '하다'가 붙는 모든 용언 뒤에서 어미 '아'가 '어'로 바뀜 • 하다 →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리’ 불 규 칙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말 뒤에 어 미 ‘-어’, ‘-어서’ 의 ‘-어’가 ‘-리’ 로 바뀜	• 이르다 → 이르러, 이르러서 • 푸르다 → 푸르러, 푸르러서 • 누르다 → 누르러, 누르러서
	‘오’ 불 규 칙	‘달다’뒤에 오는 명 령형 어미 ‘-아라’ 가 ‘-오’로 변하는 용언	• 달다 → 다오
	‘ㅎ’ 불 규 칙	‘ㅎ’으로 끝나는 어 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 애/-에’로 바뀜	• 커다랗다 → 커다래, 커다래서 • 파랗다 → 파래, 파래서 • 노랗다 → 노래, 노래서

6. 준말의 표기가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되었다 - 뒀다
 ㄴ. 쓰이어 - 쓰여
 ㄷ. 띄이어 - 띄어
 ㄹ. 적지 않은 - 적잖은
 ㅁ.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ㅁ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3회 3번 / 제16회 9번

출제 영역 // 본말과 준말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ㄱ. [X] ‘되었다 - 뒀다’가 옳은 표기입니다. ‘ㄹ’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습니다.
 ㄴ. [O] ‘쓰이어 - 쓰여/쓰여’는 옳은 표기입니다. ‘ㅌ, ㄴ, ㄷ, ㄹ’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습니다.
 ㄷ. [O] ‘띄이어 - 띄어’는 옳은 표기입니다. ‘ㅌ, ㄴ, ㄷ, ㄹ’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습니다.
 ㄹ. [X] ‘적지 않은 - 적잖은’이 옳은 표기입니다. 어미 ‘-지’ 뒤에 ‘않 -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 -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습니다.
 ㅁ. [X]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가 옳은 표기입니다. 어미 ‘-지’ 뒤에 ‘않 -이’ 어울려
‘-찮-’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 -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ㄴ, ㄷ입니다.

7.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돌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① 죽음을 단절과 상실이 아닌 연속과 회귀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②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하려는 자유의지를 형상화하였다.
 ③ 새벽빛, 이슬, 노을빛 등을 통하여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을 형상
화하였다.
 ④ 화려한 수사나 기교가 없는 독백에 가까운 서술로 이루어져 있
다.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7회 11번

출제 영역 // 주요 시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O]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를 통해 죽음을 단절과 상실이 아닌 연속과 회귀의 과정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O] 화자는 죽음을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하려는 자유의지를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새벽빛, 이슬, 노을빛 등의 시어는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모두 소멸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은 ‘새벽빛 와닿으면 스러
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러지다’는 ‘나타난 형태가 차츰 희미해지면서 없어
진다’는 의미로, ‘소멸’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O] 화려한 수사나 기교가 없이 시적 화자의 독백에 가까운 서술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

기 특

작품 분석

천상병, <귀천>

주제: 삶과 죽음에 대한 달관 / 죽음의 정신적인 승화

성격: 시각적, 서술적, 독백적

특징: ①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

② 시각적 심상이 잘 드러남

8.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술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
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간단한 손도
구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고, 상품 상자나 쓰레기 더미나 한 줄의
벽돌, 속옷 무더기, 도살된 동물 등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예술의 역사가 입증하였을 때, 예술의 본성이 철학적 의식에 충
분히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말경이 되어서야 이것이 충분하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
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철학적 미술사가 종말에 이르게 되었다.

- ① 예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만으로 그 지위와 의미가 파
악된다.
 ② 예술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비
평해야 한다.
 ③ 예술의 종말이라는 비관적 관점에서 예술의 위기와 무능력이 나
타난다.
 ④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X] ‘예술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을 통해 ‘예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만으로 그
지위와 의미가 파악된다’는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X] ‘예술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을 통해 ‘예술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작품
을 창작하거나 비판해야 한다’가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 철학적 미술사가 종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은 있지만 ‘예술의 종말이라는 비
관적 관점에서 예술의 위기와 무능력이 나타난다.’는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 ④ [O] '간단한 손도구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고, 상품 상자나 쓰레기 더미나 한 줄의 벽돌, 숙곳 무더기, 도살된 동물 등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를 통해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설화적 상상 속에서는 경험적 현실에서 생각도 못할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 사람이 단숨에 수천 리를 가고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며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다.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왕자가 한순간에 개구리가 되며 한 사람이 열 명, 백 명으로 나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상적 형상을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는 힘찬 운동을 하게 된다.

사고의 반경이 부족 넓어지고 사유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그로부터 인간 삶의 새로운 지점이 열려 나간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이런 인지적 운동을 통해 실현된다고 해도 좋다. 틀을 깨는 자유와 역동의 상상적 인지를 통해서 말이다.

- ① 형상(形象)
② 반경(半徑)
③ 사유(思惟)
④ 지경(至境)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한자 어휘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제시문의 '형상(形象)'은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할. 또는 그런 형태.'를 의미합니다. ※ 形象(모양 형, 코끼리 상)
② [O] 제시문의 '반경(半徑)'은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 半徑(반 반, 지름길 경)
③ [O] 제시문의 '사유(思惟)'는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 思惟(생각 사, 생각할 유)
④ [X] 제시문의 '지경(地境)'은 '일정한 테두리 안의 땅'을 의미하므로 '地(땅 지)와 '境(지경 경)'을 써야 합니다. '지경(至境)'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 至(이를 지)

10. '의존명사 - 조사'의 짝이 아닌 것은?

- ① 할 만큼 했다.
나는 밥통째 먹으리만큼 배가 고팠다.
② 들어오는 대로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네 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③ 10년 만에 우리는 만났다.
너만 와라.
④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야 우리는 다섯뿐이다.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11회 4번

출제 영역 // 품사의 통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X] '할 만큼'의 '만큼'은 관형어 뒤에서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지만, '먹으리만큼'의 '으리만큼'은 어간 뒤에 붙어 '을 정도로'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② [O] '들어오는 대로'의 '대로'는 관형어 뒤에서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이고, '멋대로'의 '대로'는 체언 뒤에 붙어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입니다.
③ [O] '10년 만에'의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너만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입니다.
④ [O] '할 뿐이다'의 '뿐'은 관형어 뒤에서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다섯뿐이다'의 '뿐'은 체언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입니다.

11. <보기>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가)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魚舟)에 누어신들 나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나) 동풍이 건들부니 물결이 고이닌다
돌드라라 돌드라라
동호를 도라보며 서호로 가자스랴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압피히 디나가고 뵈피히 나아온다

- ① (가), (나) 모두 어부(漁夫)가 지은 노래이다.
② (가), (나)의 화자는 모두 어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④ (나)는 어촌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문제 분석]

2018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p.340 9번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가)는 이현보의 어부가 4수로, 강화기도(조선 시대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 등이 현실을 도피하여 자연을 벗 삼아 지내면서 일으킨 시가 창작의 한 경향)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나)는 윤선도의 어부사시가입니다.

- ① [X] (가), (나) 모두 양반이 지은 노래입니다.
② [X] (가)의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어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X] (가)의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④ [O] (나)는 '압피히 디나가고 뵈피히 나아온다(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온다)'를 통해 어촌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적 감각이라는 것은 정적 감각과 대비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 역동적 느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어 풀이]

- (가) 서울을 돌아보니 궁궐(임금님 계신 곳)이 천 리로구나.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나랏일을) 잊은 적이 있으랴.
두어라, 나의 걱정할 일이로다. 세상을 건져낼 현인이 없겠느냐?
(나) 동풍이 잠깐 부니 물결이 급게 이는구나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동쪽호수(東湖)를 돌아보며 서쪽호수(西湖)로 가자구나
찌거덩 찌거덩 어영차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온다

기 특

작품 분석

· 이현보, <어부가>

갈래: 평시조, 연시조

연대: 조선 중종 때

주제: 자연을 벗하는 풍류적인 생활, 자연에 은거하는 어부의 생활

화자의 정서와 태도: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태도

성격: 강호한정가, 자연친화적

제재: 어부의 생활

· 윤선도, <어부사시>

갈래: 평시조, 연시조(전 40수), 정형시

연대: 조선 후기(조선 효종)

주제: 사계절의 자연 경치를 즐기는 강호의 한정,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여유와 어부의 흥취

여기서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업으로 하는 진짜 어부가 아니면서 어부처럼 지내는 사람으로,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결국 '어부사시'의 '어부'는 정계 또는 세상의 속사를 잊어버리고 강호에 묻혀 지내며 시를 읊고 술잔을 기울이던 사대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격: 강호한정, 자연친화적

특징: ① 고려 시대의 <어부가(漁父歌)>, 조선 전기 이현보의 <어부가>를 거쳐 형성됨

② 우리말이 가질 수 있는 율조를 최대한 살림

12. 밑줄 친 단어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그는 음식이 너무 매워 거의 먹지 못했다.
- ② 장군은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잊지 못했다.
- ③ 그 아이는 부모의 바람만큼 똑똑하지 못했다.
- ④ 오늘은 너무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용언의 활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②, ④ [X] '못하다'는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쓰였습니다.
- ③ [O] '못하다'는 형용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13. 로마자 표기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문 Dongnimmun, 광화문 Gwanghwamun
- ② 선릉 Seolleung, 정릉 Jeongneung
- ③ 신문로 Sinmunno, 을곡로 Yulgongro
- ④ 한라산 Hallasan, 백두산 Baekdusan

[문제 분석]

2018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p.169 5번, 6번

출제 영역 // 로마자 표기법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O] '독립문'은 [동님문]으로 발음하므로 'Dongnimmun'으로 표기합니다. 'Dokripmun'이라고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광화문'은 모음 앞에서는 'g'를 쓰므로 'Gwanghwamun'으로 씁니다. 'Kwanghwamun'이라고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② [O]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하는 유음화에 따라 선릉은 [설릉]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로마자 표기를 하면, 'ㄹ'은 'l'로 적습니다. 그러므로 'Seolleung'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릉'은 비음화에 따라 [정 : 능]으로 발음되므로 'Jeongneung'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③ [X] '신문로'는 'ㄹ'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된 발음인 [신문로]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 'Sinmunno'는 옳은 표기입니다.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 길, 로'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 gil, ro'로 적고, 그 앞에는 불임표(-)를 넣습니다. 또한 불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Yulgok-ro'라고 써야 합니다.
- ④ [O] '한라산[할 : 라산]'은 유음화를 반영하여 'Hallasan'으로 표기합니다.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백두산[백두산]'은 'Baekdusan'으로 표기합니다.

14.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잘못된 사람이 되려 큰소리를 친다.
- ② 너는 시험이 코앞인데 맨날 놀기만 하니
- ③ 어제 일을 벌써 깡그리 잊어버렸다.
- ④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억수로 흘렸다.

[문제 분석]

2018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p.125 7번

출제 영역 // 표준어 규정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X]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를 의미하는 '도리어'의 준말은 '되려'입니다. '되려'는 '도리어'의 방언입니다.
- ② [O] '맨날'은 '만날'과 함께 복수 표준어입니다.
- ③ [O] '깡그리'는 '하나도 남김없이'를 의미하는 부사입니다.
- ④ [O] '억수'는 '1.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2.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코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15.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주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 ② 할아버지께 여쭙워 보시면 됩니다.
- ③ 라면이 분기 전에 빨리 먹어라.
- ④ 내 처지가 너무 설위서 눈물만 나온다.

[문제 분석]

2018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p.40 19번

출제 영역 // 주의해야 할 용언의 활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X] '곤혹스럽다'는 'ㅂ' 불규칙 용언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 'ㅂ'이 '오/우'로 변합니다. 따라서 '곤혹스럽다 + -은'은 '곤혹스러우'으로 활용합니다. 어간의 말음인 'ㅂ'을 탈락시켜 '*자랑스런, *사랑스런'처럼 쓰기도 하지만, 맞춤법에 맞는 표기는 'ㅂ'이 '우'로 변하는 형태인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입니다.
- ② [O] '여쭙다'는 'ㅂ' 불규칙 용언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 'ㅂ'이 '오/우'로 변합니다. 따라서 '여쭙다 + -어'는 '여쭙워'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여쭙다'를 활용하면 '여쭙어/여쭙'가 됩니다.
- ③ [O] '분다'는 어간 말음인 'ㄷ'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활용을 하는 'ㄷ' 불규칙 용언입니다. 그러나 자음 어미 앞에서는 규칙 활용하므로 '분다 + -기'는 '분기'입니다.
- ④ [O] '설다'는 'ㅂ' 불규칙 용언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 'ㅂ'이 '오/우'로 변합니다. 따라서 '설다 + -어서'는 '설위서'가 됩니다. 참고로 '서럽다'를 활용하면 '서러워'가 됩니다.

16.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그때의 사회적 합의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부는 대개의 경우 경제 발전과 같은 거시적 성과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당성의 취합함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고자 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을(를)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이를 진지하게 다루어 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해 정치적 결정을 위한 ㉡(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 | | | | |
|------|----|------|----|
| ㉠ | ㉡ | ㉠ | ㉡ |
| ① 문제 | 합의 | ② 갈등 | 성과 |
| ③ 갈등 | 의제 | ④ 의제 | 문제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③ [O] ㉠의 앞에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를 통해 ㉠에는 '갈등'이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 앞에서 '이를 진지하게 다루어 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해 ~'라고 하고 있으므로 ㉡에는 정치적 결정을 위한 '의제(회의에서 의논할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17. 국어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집에서 가져 왔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다.
- ② '는'은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일을 빨리 는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조사이다.
- ③ '가'는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그것은 종이가 아니다'의 경우에는 보격 조사이다.
- ④ '과'는 '눈과 같이 하얗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책과 연필이 있다'의 경우에는 접속 조사이다.

[문제 분석]

2018 기특한 국어 기술 변형 문제집 p.60 2번

출제 영역 // 국어의 9품사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② [X]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 '는'은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는'은 주격 조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18.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의미상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미봉책(彌縫策)
- ② 임기응변(臨機應變)
- ③ 임시방편(臨時方便)
- ④ 언 발에 오줌 누기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술변형문제풀이 제15회 2번

출제 영역 // 속담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는 일이 몹시 급하여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어 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로도 씁니다.

- ① [X] '미봉책(彌縫策)'은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計策)'을 의미합니다. ※ 彌縫策(미륵 미, 꿰맬 봉, 꿰 책)
- ② [O] '임기응변(臨機應變)'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을 의미하므로 의미상 거리가 가장 멉니다. ※ 臨機應變(임할 임, 틀 기, 응 할 응, 변할 변)
- ③ [X] '임시방편(臨時方便)'은 갑자기 터진 일을 우선 간단하게 둘러맞추어 처리함을 의미하여 '임시변통'이라고도 합니다. ※ 臨時方便(임할 임, 때 시, 모 방, 편할 편)
- ④ [X] '언 발에 오줌 누기'는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19. <보기>의 작품들을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율하 율하 아련 비율하.

여흘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곳 얼면 여흘도 도흐니 여흘도 도흐니.

ㄴ.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燐灼而喫也

ㄷ.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안니다가

향 트틴 놀애로 님의 오식 올뜨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하노라.

ㄹ.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찬노리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리라.

무심흔 들빛만 싹고 빈 비 저어 오노라.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ㄱ - ㄷ - ㄹ
- ③ ㄱ - ㄴ - ㄹ - ㄷ
- ④ ㄴ - ㄱ - ㄹ - ㄷ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술변형문제풀이 제14회 6번 / 제15회 13번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ㄱ. '만전춘(滿殿春)'은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자와 연대 미상의 고려 가요입니다. 전 5연으로 되어 있으며 <악장가사>에 실려 있습니다.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라고도 합니다.
 - ㄴ. '구지가(龜旨歌)'는 구지봉(龜旨峯) 주위에 살던 구간(九干)과 그 백성들이 수로왕(首露王)을 맞이 위해서 부른 고대 가요이며,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 ㄷ. '사미인곡(思美人曲)'은 조선 선조 18년(1585)에 정철이 지은 가사 작품으로, 작가가 관직에서 밀려나 4년 동안 전라남도 창평에서 지내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운 정을 간곡하게 읊은 작품으로 모두 126구로 되어 있으며, <송강가사>에 실려 전합니다.
 - ㄹ. '추강에~'는 조선 성종(1457~1494) 때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1454~1488)이 지은 시조로 가을밤의 경취와 풍류를 그리고 있습니다. <청구영언>에 실려 전합니다.
- 따라서 정답은 ④ ㄴ - ㄱ - ㄹ - ㄷ입니다.

[현대어 풀이]

- ㄱ. 오리아 오리아
어린(연약한) 비오리아
여울일랑 어디 두고
못(沼)에 자리 오느냐
못이 얼면 여울도 좋거니 여울도 좋거니
- ㄴ.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 ㄷ. 차라리 사라져(죽어져서)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앓고 다니다가
향기가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으리라.
임께서야 (그 범나비가)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임을 따르려 하노라.
- ㄹ. 가을 강에 밤이 되니 물결이 차갑구나
낙시를 드리우니 고기는 물지 않는구나
욕심이 없는 달빛 싹고 빈 배 저어 돌아오는구나

20. 국어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할 수 있다.
- ②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 ③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 ④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술변형문제풀이 제8회 4번

출제 영역 // 국어의 9품사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O]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할 수 있습니다.
- ② [O]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시골 풍경)
- ③ [X] 일반적으로 부사는 체언을 수식하지 않지만 '겨우' '바로' 등과 같은 부사는 드물게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겨우 이것, 바로 너 등)
- ④ [O]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은 쉬기도 해라. /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맘껏을 마셔라. → '은'과 '을'은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